

연구논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취업 여부 차이를 중심으로*

Female Adult Children's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Transition
to Marriage

김필숙^{a)} · 이윤석^{b)}

Phil-Suk Kim · Yun-Suk Lee

이 연구는 미혼 여성들의 부모와 동거 여부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 연도(2007년도)부터 6차 연도(2016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여성들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이행 확률이 더 낮다. 둘째, 미취업 상태인 미혼 여성보다 취업한 여성이 결혼 이행 확률이 더 낮다. 셋째, 부모와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을 늦추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다. 부모와 따로 살 때 취업 여성에 비해 미취업 여성의 결혼 이행이 더 빠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족 형태의 변화가 미혼 여성들의 결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부모와의 동거, 취업, 결혼 이행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residence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워킹 페이퍼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기초·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a)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E-mail: yslee@uos.ac.kr

with parents on marriage for single adult women and the difference in this influenc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The data from the 1st(2007) to the 6th(2016)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fro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ngle women who are in coresidence with their parents a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than those who are not in coresidence with their parents. Second, those who are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get married than those who are employed. Third, although the coresidence status of unmarried women postpones their marriages, its influence vary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status. Single women who are not employed are likely to get married earlier than those who become employed when they are not in coresidence with their parent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c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re influencing their entrance into marriage.

Key words: coresidence with parents, employment, transition to marriage

I. 서론

최근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5년 29.6%에서 2015년 77.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34세 연령층도 미혼율이 6.7%에서 37.0%로 높아졌고, 40~44세도 1.9%에서 11.3%로 상승했다(권순필·최은영 2018). 지난 20년간 여성의 미혼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 혼인 연령층인 25~34세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중부담과 관련이 있다(최필선·민인식 2015; Kim et al. 2016; Raymo and Ono 2007).

여성 미혼율이 높아지면서 가족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7년 만에 152.6%나 증가했다. 특히 미혼 1인 가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미혼 1인 가구는 95만 6천 가구에서 2015년 228만 4천 가구로 늘었다(통계청 2018). 이러한 추세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김정석 2006; 어여봉 2017). 여성들은 결혼생활 중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렵고 때때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작다고 알려져 있다(김혜영·선보영 2011; 이소영 외 2018; Becker 1973). 따라서 최근 미혼 및 이혼의 증가 등 혼인행위의 증가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박기남 2011; 김희정 2018; 문선희 2012; Kim et al. 2016; Oppenheimer 1997; Raymo & Ono 2007).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혼인 연구들은 최근 벌어지는 많은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혼, 학업 연장 및 취업 지연 등으로 인해 성인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자녀 또한 증가하고 있다(강유진 2016; 김은정 2015; 최연실 2014; Raymo & Ono 2007; Yu & Kuo 2016). 2018년 20~44세 미혼 여성의 78.8%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이소영 외 2018), 최근 들어 30대부터 40대 초반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조성호 외 2017). 그러나 20~30대 미혼율 급증 및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미혼율 상승으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및 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 가구 형태가 개인의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김정석 2006). 실제로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미혼 여성의 결혼 관계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이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aymo & Ono 2007; Mulder et al. 2006; Yu & Kuo 2016).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와 결혼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몇 경험적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여성의 결혼 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정 외 2018).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석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로서 결혼에 대한 의향만을 살펴본 연구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혼 여성들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결혼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현재 미혼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 연도(2007)부터 6차 연도(2016)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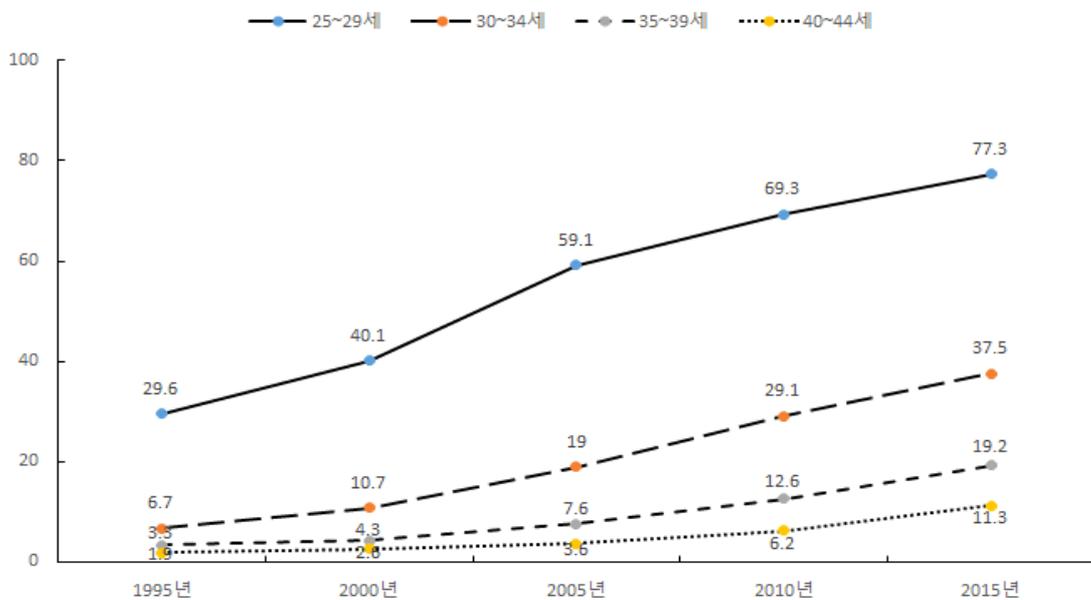
II. 선행연구 검토

1. 미혼 여성의 결혼과 부모와의 동거 현황

많은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20세~44세)을 대상으로한 결혼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7.7%보다 낮은 수준이며, 남성(18.1%)보다 여성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이소영 외 2018). 미혼 여성들의 결혼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취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미혼 여성들이 현재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결혼보다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이윤석·구애리 2008; 공선희 2008). 또한, 미혼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33.1%),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14.3%)’는 대답에서 보듯이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혼 및 출산 이후 직장생활에 대한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 또는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혜영·선보영 2011).

이러한 태도 변화와 함께 미혼 여성들의 초혼 연령도 2000년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08년 28.3세로 상승했고, 2018년 현재 30.4세로 10년 전보다 2.1세 상승하였다. 이는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1.8세 상승한 것보다 더 높다(통계청 2018). 초혼 연령 상승은 미혼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 199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25세에서 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5년 29.6%에서 2015년 77.3%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세에서 34세의 경우 6.7%에서 37.5%까지 높아졌다. 또한, 2000년대까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미혼율이 5% 미만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성의 초혼 연령 증가와 미혼율 증가는 ‘특정 연령까지는 결혼해야 한다’라는 결혼에 대한 연령 규범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림 2013). 실제로 미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살펴보면, 30~31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32~34세 26.2%, 35세 이상이 17.4%이다. 27세 이하는 5.4%로 가장 낮다(이소영 외 2018). 결혼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춰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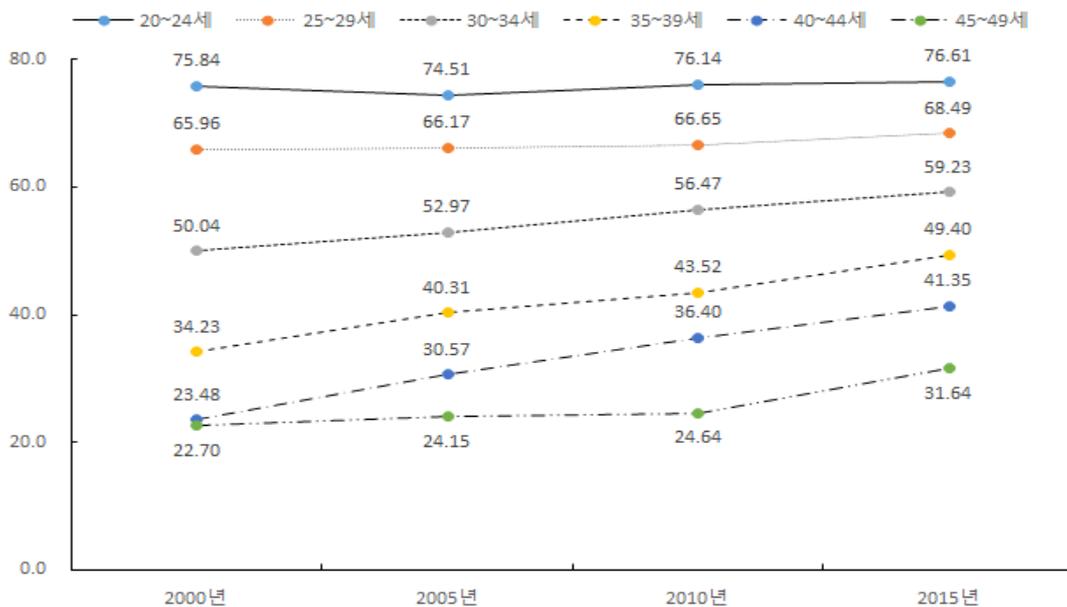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변화(단위: %)

인용: 권순필·최은영(2018: 7-8).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년), 통계개발원.

미혼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족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2015년 현재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43.8%이다. 이는 2000년 43.0%에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인 경우가 3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29.2%, 40대 16.4%로 20~30대 미혼 인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2018).

한편 비정규직 및 청년 실업률 증가, 학업 연장 등 자녀들의 독립이 지연되면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최근 30대에서 40대 초반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7).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20~24세 미혼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2000년 75.81%에서 2015년 76.61%로 15년 동안 큰 변화는 없다. 25~29세 연령층에서도 65.96%에서 68.49%로 조금 높아졌다. 그러나 20대와 달리 30~34세의 경우 50.04%에서 59.23%로 상승했다. 35~39세에서도 34.23%에서 49.40%로 높아졌고, 40~44세에서도 23.48%에서 41.3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특징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사는 부모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동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조성호 외 2017). 그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 남성과 달리 결혼 전까지 부모에게서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부모의 태도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오호영 2015).



〈그림 2〉 미혼 여성의 연령별 부모와 동거 비율(단위: %)

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함.

자료: 조성호 외(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2. 미혼 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와의 동거 여부

주거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은 부모에게서 독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력을 갖는 것이다(Cordón 1997; Kins & Beyers 2010). 이런 측면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성인 자녀가 분가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 거주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 및 노동시장 불안정 등이 장기화되면서 미혼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은정 2015; 이선이 외 2015).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미혼 여성의 결혼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먼저, 부모와의 동거가 가진 긍정적 측면이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부모랑 같이 사는 미혼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 이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ulder et al. 2006; Raymo & Ono 2007; Yu & Kuo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 여성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즐길 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집안일 등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Mulder et al. 2006; Raymo & Ono 2007). 때문에 많은 미혼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이재경 2019).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혼여성들이 독립된 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결혼을 가능하면 연기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보다는 개인의 독신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김정석 2006). 그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통해 결혼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결혼 선택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윤석·구예리 2008; 이재경·김보화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 동거 여부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주로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결혼 의향은 결혼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상림 2013; Riggo & Weiser 2008). 또한, 횡단적(cross-sectional) 조사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초혼이 발생한 시점에 있어 실제적인 결혼 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실제 결혼 이행에 미치는 보다 실질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취업 여부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설명되어 왔다(Oppenhimer 1997; Kim 2017; Piotrowski et al. 2015). 그러나 취업과 결혼 관련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취업이 여성들의 결혼 시기를 연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정규직일 경우 초혼 형성 해저드를 낮추며, 미취업 여성보다 결혼할 의향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중백 2013; 김주현·이수진 2019; 윤자영 2012).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취업한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연구들은 미혼 여성에게 취업 여부는 결혼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이 초혼 연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남성과 달리 취업한 여성의 결혼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진성 2016). 또한 취업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필선·민인식 2015). 하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취업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주희정·김민석 2018), 특히 세부적인 고용 형태 및 소득 효과 등 취업 관련 요인은 미혼 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곤 2018; 오지혜·임정재 2016).

3)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및 취업 여부 차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과 달리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및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Cordón 1997; Kins & Beyers 2010). 이 경우 개인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김정석 2006). 특히 미혼 여성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은 결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 직업 유무에 따라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취업 여부가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와 떨어져 사는 취업 여성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여성의 초혼과 취업이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윤자영 2012) 이 경우 결혼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와 달리 부모와 떨어져 사는 비취업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은 이루었으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으로 인해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의 청년 실업률 및 비정규직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결혼 이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심리적 및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이재경·김보화 2015), 이러한 효과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인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취업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문제

최근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결혼 지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취업 및 교육 등 경제적 자원이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김은정 2018;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임훈·김중백 2013). 그러나 여성의 미혼율이 높아지면서 성인 자녀가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와의 동거와 미혼 여성의 결혼 관계를 연구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혼 여성의 결혼 관련 연구는 결혼에 대한 태도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실제 결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나?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대상

이 연구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는 전국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삶과 가족의 구조, 생애과정, 가족관계와 일자리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전국 9,711가구의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12,285명의 표본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2차 조사, 2010년 3차 조사, 2012년 4차 조사, 2014년 5차 조사, 2016년 6차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8년 현재 7차 조사가 이루어졌다(주재선 외 2018).

이 연구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1차조사(2007년)에 미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6차 연도(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추적하는 조사로 각 차수별 표본유지율은 2차 조사(2008년) 85.3%, 3차 조사(2010년) 80.1%, 4차 조사(2012년) 75.2%, 5차 조사(2014년) 72.6%, 6차 조사(2016) 70.1% 이다. 패널 조사 중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여준다(주재선 외 2016). 이는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결혼 이행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2. 변수¹⁾

1) 결혼 이행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이다. 이를 위해 1차 조사(2007)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varying) 설명변수는 결혼 이행,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여부, 연령, 교육, 총 가구소득이며, 시간불변(time-invariant) 변수는 아버지 교육, 성장지 거주 지역이다.

표본 중 현재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이라고 응답한 표본만 선택하여 6차 조사(2016)까지 결혼상태를 추적한다. 따라서 조사 시점(2007~2016)을 기준으로 미혼인 경우는 0, 기혼인 경우 1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혼인상태에 대해 1차 조사(2007)에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표본이 2차 조사(2008)에서 ‘결혼했다’고 응답한 경우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 이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2)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 경우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1),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 둘 다 아니다’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0)로 구분하였다.

3) 취업 여부

취업 여부는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자리가 있는 경우 1, 일자리가 없는 경우 0으로 분류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 총 가구소득, 아버지 교육, 성장지 거주 지역 등을 포함했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총 가구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가구소득으로서 연속변수이다. 아버지 교육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장지 거주 지역은 15세 무렵 살았던 곳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기타(읍·면)로 구분했다.

3. 분석내용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1차 연도(2007) 조사 표본(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중에서 현재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이라고 응답한 표본만 선택한다. 1차 연도(2007) 표본 중에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표본은 1,226명이며, 이 표본에 대해 6차 연도(2016)까지 혼인상태를 추적하였

다. 한편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이행은 다양한 경우를 제시한다. 즉, 중도절단(censored)은 사건(event)을 경험하여 미혼이었던 표본이 결혼으로 바뀌는 경우, 중간에 조사 실패로 표본에서 빠지는 경우, 6차 조사(2016)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측절단(right-censored)으로 인해 미혼 여성들의 혼인상태 확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조사(2007)에서 미혼인 1,226²⁾명의 혼인상태를 추적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사건사 분석(event-history)을 진행하였고,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개인-기간(person-period) 형태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226명이며, 1차 연도(2007)부터 6차 연도(2016)까지 2,638번의 개인-연도(person-year) 자료가 모아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연도(person-year)를 기본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표 1> 조사 참여 및 혼인상태 변화

(단위: N, %)

N	drop	미혼	기혼	조사년도
1,226*	340(27.7)	857(69.9)	29(2.4)	2 차(2008)
857	210(24.5)	590(68.8)	57(6.7)	3 차(2010)
590	144(24.4)	398(67.5)	48(8.1)	4 차(2012)
398	92(23.1)	270(67.8)	36(9.0)	5 차(2014)
270	47(17.4)	202(74.8)	21(7.8)	6 차(2016)

*: 1차(2007)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미혼이라고 응답한 1,226명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 및 혼인상태를 추적함.

먼저, 미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1차 연도(2007)부터 6차 연도(2016)까지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변화를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결혼 생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³⁾

2) 1차(2007)에서 미혼인 1,226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78.3%, 30대 16.1%, 40대 4.2%, 50대 이상 1.5%로 미혼 인구의 모든 연령까지 분석에 포함시킴.

3) 이 연구는 사건사 분석을 통해 1차 조사(2007) 시점에서 미혼인 1,226명에 대해 6차 조사(2016)시

IV. 연구결과

1. 미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i>N</i>	%
결혼 여부	미혼	2,082	78.9
	기혼	556	21.1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동거	1,757	33.4
	비동거	881	66.6
직업 여부	일자리 있음	1,626	61.6
	일자리 없음	1,012	38.0
연령(평균)	29.0		
교육	고졸 이하	917	34.8
	전문대 졸업	602	22.8
	4년제 대졸 이상	1,119	42.4
총 가구소득(평균)	3,340.8(만원)		
아버지 교육	중학교 졸업 이하	952	36.1
	고등학교 졸업	1,219	46.2
	전문대 졸업	89	3.4
	대졸 이상	378	14.0
15세 무렵 거주 지역	대도시	1,398	53.0
	중소도시	684	25.9
	기타	556	21.1
Number of person-year observations		2,638	

점까지 혼인상태를 추적한다. 그러나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이행은 중도절단(censored)으로 인해 1차 조사(2007)부터 6차 조사(2016)까지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상태로 인해 사건사 분석에서 각 차수별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워 최종 분석에서 가중치 제외하고 분석함.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모든 값은 최종분석 시점에서 도출된 값이다. 따라서 분석 기간 동안 결혼을 경험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78.9%,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 이행의 경우는 21.1%로 전체 분석대상 중 결혼을 경험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인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33.4%, 비동거 66.6%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여성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1.6%가 현재 취업한 상태이며, 38.0%는 비취업인 경우이다. 평균 연령은 29.0세이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8%, 전문대학교 졸업 22.8%,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2.4%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36.1%, 고등학교 졸업 46.2%, 전문대학교 졸업 3.4%, 대학교 졸업 이상 14.0%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은 3,340.8만원이며, 마지막으로 15세 무렵 거주 지역은 53.3%가 대도시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5.9%, 기타 21.1%이다.

2.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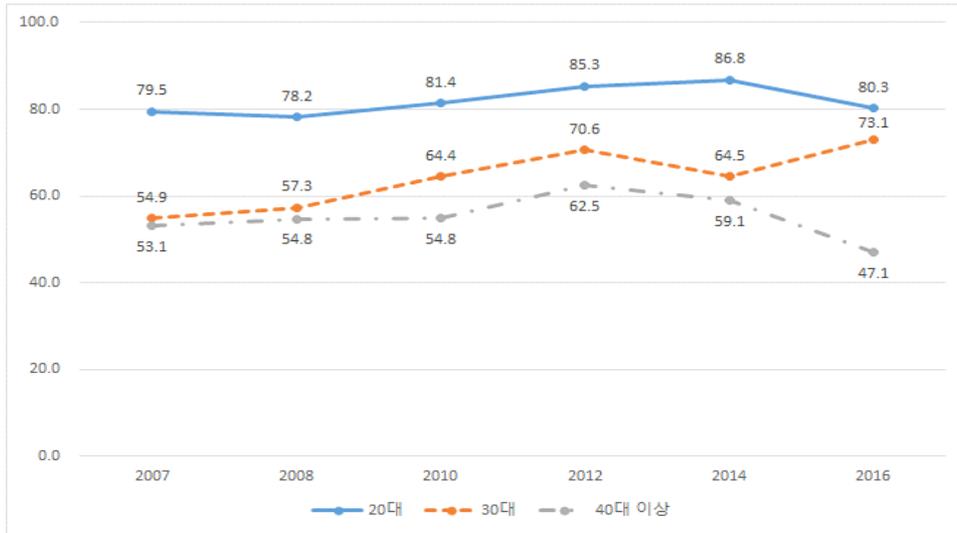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연도(2007) 조사 시점부터 6차 연도(2016)까지 연령별 부모와의 동거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 기간 동안 미혼 여성의 부모와 동거 변화를 보면 <표 3>과 같다. 그 결과 2007년 1,226명의 미혼 여성 중 74.0%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2012년 77.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75.9%로 감소했으며, 2016년 68.3%까지 낮아졌다.

미혼 여성의 연령별 부모와의 동거 변화 추이를 조사 시점에 따라 살펴본 결과 (<그림 3>),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여성 비율이 20대의 경우 2007년 79.5%에서 2016년 80.3%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54.9%(2007년)에서 73.1%(2016년)로 높아졌고, 40대의 경우 53.1%(2007년)에서 47.1%(2016년)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미혼 여성의 부모와 동거 변화

(단위: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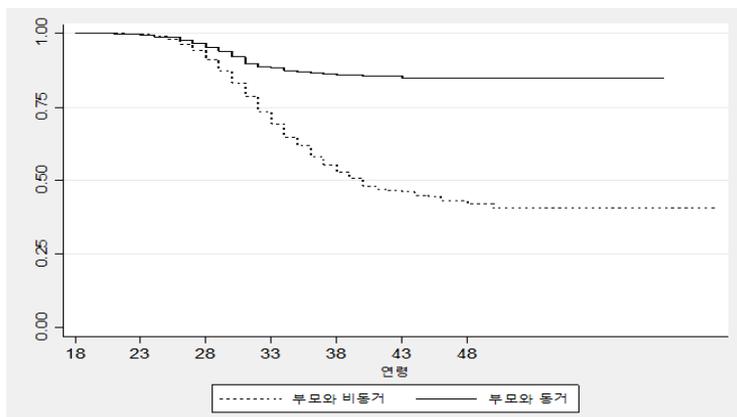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미혼	1,226	857	590	398	270	202
동거	907	624	442	309	204	138
동거 비율	74.0	72.8	74.9	77.6	75.9	68.3



〈그림 3〉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변화: 연령 및 조사 연도(단위: %)

3.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관한 생존 함수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을 통해 미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결혼 이행 생존 함수를 살펴보았다. <그림 4>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특정 연령에서 부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초반까지 부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 두 집단 모두 결혼 이행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부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이 결혼 이행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30대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결혼이행 생존 함수(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4.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직업 여부,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직업 여부에 따른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 모델 1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직업 여부를 투입하였다. 모델 3에서는 통제변수를, 모델 4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직업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였다.

<표 4>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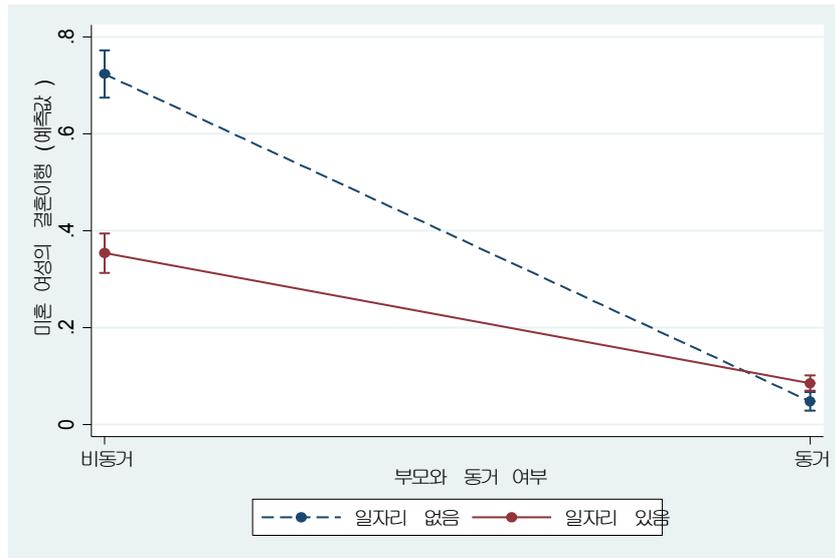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부모와 동거 여부	-2.474***	0.114			-2.611***	0.130	-4.268***	0.261
직업 여부			-0.301***	0.097	-0.873***	0.124	-1.758***	0.170
연령					0.012	0.009	0.004	0.010
교육(준거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1.019***	0.166	0.925***	0.177
4년제 대졸 이상					0.845***	0.151	0.743***	0.162
아버지 교육(준거집단: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0.090	0.131	-0.008	0.135
전문대 졸업					-1.130*	0.467	-1.048*	0.475
4년제 대졸 이상					-0.490*	0.197	-0.293	0.204
성장지 거주 지역(준거집단: 대도시)								
중소도시					-0.187	0.142	-0.163	0.146
기타					-0.082	0.148	0.001	0.152
총 가구 소득					0.504***	0.070	0.508***	0.067
부모와 동거 여부 x 직업 여부							2.395***	0.289
Log likelihood	-1071.283		-1353.702		-977.956		-937.8094	
Number of person-year observations	2,638		2,638		2,638		2,638	

* p<.05, ** p<.01, *** p<.001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는 경우,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동거가 가진 긍정적 측면이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해외의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 효과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동거는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통제력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김정석 2006; Mulder et al. 2006) Raymo & Ono, 2007; Yu & Kuo, 2006). 때문에 미혼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 결혼 이행 시기가 더욱 늦어지는 것이다.

모델 2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이행을 살펴본 결과, 미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한 미혼 여성의 경우에 있어 결혼 이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취업이 여성의 초혼 가능성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김주현·이수진, 2009; Piotrowski et al. 2015). 모델 3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및 취업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들을 통제된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 비동거할 때, 취업한 여성에 비해 미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 이행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에서 완만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취업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미취업 여성의 경우 취업한 여성과 달리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혼이 주는 경제적 및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한다면(이재경·김보화 2015)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해 결혼 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림 5〉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여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간 상호작용 효과

V. 결론 및 논의

여성 미혼율이 높아지면서 가족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미혼인 1인 가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만혼, 학업 연장 및 취업 지연 등으로 인해 성인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자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20~30대 미혼율 급증 및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 연도(2007)부터 6차 연도(2016)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여성들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결혼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현재 미혼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 비동거인 미혼 여성보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미혼 여성의 결혼이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경제적 자립의 기준으로 본다면(Cordón 1997; Kins & Beyers 2010)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가족 형성이

경제적 자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부모로부터 분가 후 독립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조성호 외 2017; 최은실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 여성의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의 집이 주는 경제적 여유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집안일 등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시기는 더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김은정 2015; Mulder et al. 2006; Raymo & Ono 2007).

둘째,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와 비동거할 때 취업한 여성에 비해 미취업한 여성의 경우 결혼 이행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및 취업 여성 두 집단 모두 부모에게서 독립 후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자립한 상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가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한국의 취업 시장은 불안정하기만 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김은정 2015). 따라서 미혼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서적 및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이재경·김보화 2015) 부모와 비동거하는 취업 여성보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 시기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 성인 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와 결혼 사이의 정책적 함의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와의 동거 효과와 성인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측면이다.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및 주거 영역의 독립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은 생각하기도 힘든 세대가 지금의 미혼 성인 자녀들이다(김은정 2015; Arnett & Tanner 2006).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Johnson 2013; Hartnett et al. 2012). 그러나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어 부모 세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성인 자녀 세대의 경제적 및 주거독립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김영란 외 2017). 따라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및 결혼 시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성인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간의 관계는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혼율 증가로 인해 만혼화 현상은 더욱 지속되고 있고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이재경 2019). 이러한 태도 변화는 취업한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경화 2004). 많은 미혼 여성들은 일과 가족생활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만혼화 현상과 결혼에 대한 기피가 결과적으로 최근의 출산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혜영·선보영 2011).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저출산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당위로 생각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의 사회환경은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결혼 이행에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패널조사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과 가족구조 등 다양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혼 이행 시기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널 자료를 통해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결혼 이행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고 단독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가족패널분석의 조사대상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30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부모와의 동거와 비동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1인 가구의 다양한 측면과 실제 결혼 이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취업변수를 현재 일자리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러나 취업 혹은 비취업 상태의 일자리 여부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임금 등 취업 관련 다양한 요인이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자녀의 부모관계의 질과 관련요인: 세대 간 지원교환, 가족부양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387-403.
- 공선희. 2008. “서울시 미혼남녀의 일-가족 생활세계와 출산의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권순필·최은영. 2018.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년)”. 2018년 상반기 연구 보고서 제III권. 통계개발원.
- 김경화.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175-199.
- 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2017 연구보고서-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4): 1291-1306.
- 김정석. 201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주현·이수진. 2019. “한국과 일본 비혼 현상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42(1): 115-138.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 김희정. 2018. 《미혼 여성의 다차원적 빈곤과 결혼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한곤. 2018. “여성들의 비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9: 273-301.

- 김혜영·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변수정·조성호·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7. 10)》 64-77.
- 오지혜·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 오호영. 2015. 《캥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진성. 2016.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KERI 정책제언》 16-45: 1-34.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3 3(4): 39-71.
- 이선이·김현주·어여봉. 2015. “성인기 이행과정의 부모자녀관계 유형: 군집분석.” 《가족과 문화》 27(3): 191-223.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석·구애리. 2008. “미혼 여성들의 직장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인구교육》 1(1): 37-60.
- 이재경. 2019. “부산 30대 싱글들의 마음과 삶: 결혼은 선택, 지금은 부모랑 사는 것이 더 좋다.” 《동향과 전망》 106: 152-166.
- 이재경·김보화. 2015. “2-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 임훈·김중백. 2013. “취업이 희망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45-67.
- 조성호·스가 케이타·와타나베 유이치·시카다 마사토·김유경·김지민.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재선·김영란·정성미·송치선·한진영·이진숙·손창균·윤자영. 2018. 《2018년 여성가

- 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문유경·김영란·김영택·전기택·송치선·한진영·김근태·은기수·이진숙. 2016.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희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와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최필선·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통계청. 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8.07.02.
- 통계청. 2018. “2018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19.03.20.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구가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8. 9.28.
- Arnett, J. and J.L. Tanner. 2006.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cker, G.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Cordón, J.A.F. 1997. “Youth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6): 576-607.
- Kim, B.H., J.K. Lee, and H. Park. 2016. “Marriage, Independence and Adulthood among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4(3): 338-362.
- Kim, K.T.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5): 145-172.
- Kins, E. and W. Beyers. 2010. “Failure to Launch, Failure to Achieve Criteria for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5): 743-777.
- Hartnett, C.S., F.F. Furstenberg, K.S. Birditt, and K.L. Fingerman. 2013. “Parental Support during Young Adulthood: Why Does Assistance Decline with Age?” *Journal of Family Issues* 34(7): 975-1007.
- Johnson, M.K. 2013. “Parental Financial Assistance and Young Adult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Well 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3): 713-733.
- Mulder, C.H., W.A. Clark, and M. Wagner. 2006. “Resources, Living Arrangements

- and First Union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We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1): 3-35.
- Oppenheimer, V.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431-453.
- Piotrowski, M., A. Kalleberg, and R.R. Rindfuss. 2015. “Contingent Work Rising: Implications for the Timing of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39-1056.
- Raymo, J.M., and H. Ono. 2007. “Coresidence with Parents, Women’s Economic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8(5): 653-681.
- Riggio, H.R. and D.A. Weiser. 2008. “Attitudes toward Marriage: Embeddedness and Outcom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23-140.
- Yu, W.H. and J.C.L. Kuo. 2016. “Explaining the Effect of Parent-child Coresidence on Marriage Formation: The Case of Japan.” *Demography* 53(5): 1283-1318.

<접수 2019/09/25, 수정 2019/11/19, 게재확정 2019/11/29>